

『자연을 사랑합니다.』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79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씀 출애굽기 5:1-9

-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게 할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늘의 키포인트 -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며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갑시다.

말씀 나누기

해양 쓰레기 1위인 담배꽂초의 미세플라스틱과 독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와 플랑크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사라지면 먹이사슬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신종 전염병 급증, 대형 산불과 폭우 같은 기후 재앙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이미 세계 삼림의 80%가 파괴되었고, 지구는 열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과 생명을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의 완강한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5장 1~9절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체험한 후 선지자로 인정받아 바로에게 백성을 풀어달라고 명령하지만,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보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민수기 1장 46절 기준 약 200만 명(20세 이상 남자 603,550명)의 거대한 노동력이 예배하러 간다며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애굽의 노동을 책임질 노동자들이 나가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로는 노동력을 더 얻고자 애굽인들을 군대처럼 조직하여 히브리인들을 강제 동원하고 가혹하게 노동 시킵니다. 바로는 벽돌 수용량은 그대로 두고 동일한 시간 안에 짚을 스스로 갖다 쓰라고 명령하며, 일을 못하면 애굽의 감독들이 구타를 행합니다. 이는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 생산성만을 극대화하려는 현대 산업 사

회의 착취 구조와 닮았으며, 환경 파괴는 단순히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차례로 보이신 이유는 자기 백성, 애굽 사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한 생산 도구로만 보았고, 오늘날 인간이 자연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원이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입니다.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면 죄를 짓게 되므로 바로의 탐욕스러운 시스템(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궁극적 이유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예배)를 지키기 위함이며, 안식은 인간 뿐 아니라 땅과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는 도구이자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생산적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다(슈브)'는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이 만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며,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적용 - 삶 나누기

1. 사람의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중보기도

1. 2026년 춘천동부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2.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3.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4. 대심방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소서.

봉헌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봉헌기도** 인도자 **주기도문으로 구역예배를 마치겠습니다.**